

# 백신접종 지원 · 생활방역 희망근로자 모집

### 전주시, 12~14일까지 실직자·휴·폐업자·무급휴직자·취약계층 등 대상 6개 분야 1199명

코로나19로 실직했거나 휴·폐업한 시민들에게 백신접종 지원, 생활방역 등의 일자리가 제공된다.

전주시는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직자와 휴·폐업자, 무급휴직자,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2021 희망근로 지원사업' 참여자 1,199명을 모집한다. 이번 희망근로 지원사업은 ▲백신접종 지원 ▲생활방역 지원 ▲문화·예술환경 정비 ▲공공업무 지원 ▲청년 지원사업 ▲지자체특성화사업 등 6개

분야로 운영된다. 백신접종 지원 분야는 오는 26일부터 10월 말까지 사업이 이어지며, 나머지 사업들은 오는 26일부터 7월 16일까지 진행된다.

백신접종 지원 분야 참여자들은 접종센터 질서관리, 예진표 작성 지원, 체온 확인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생활방역 지원 분야의 경우 각종 시설에 배치돼 방역인력으로 활동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근로능력이 있으나 일자리가 없는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 전

주시민(청년지원 사업은 만 18~39세)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폐업·휴업자 등을 중점적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다만,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와 실업급여 수급자, 공무원 가족(배우자 및 자녀) 등은 제외된다.

근로조건은 1일 4시간씩 주 20시간 근무로, 임금은 시급 8,720원(2021년 최저시급)과 부대경비 5,000원이다. 여기에 주·월차, 공휴일 유급수당이 추가로 지급된다.

희망자는 전주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한 뒤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일자리청년정책과(063-281-2396)로 문의하면 된다.

김봉정 전주시 일자리청년정책과장은 "희망근로 지원사업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 및 생계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를 확충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자연재해 대비 풍수해보험 가입하세요”

### 전주시, 시민 재산 보호 위해 보험료 최대 91% 지원

전주시가 태풍·홍수 등의 자연재해에 대비해 시민들의 풍수해보험 가입을 7일 당부했다.

시는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풍수해보험료를 최대 91%까지 지원한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 8개 유형의 자연재해 발생 시 국가와 지자체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 시민들이 저렴한 보험료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재난 관리제도다.

특히 자연재난 발생 시 최소 복구비용을 정책으로 지원받는 재난지원금과는 달리 풍수해보험의 경우 실제 피해금액의 최고 90%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보험대상 시설물은 주택, 상가·공장,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등으로, 보험기간은 1년을 기본으로 2~3년 장기계약도 가능하다.

시는 풍수해보험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은 최대 91%까지 보험료를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풍수해에 취약한 전통시장과 자연재해 위험지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중심으로 적극 독려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보험 가입은 DB손해보험과 현대해상 화재보험, 삼성화재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등 5개 민영보험사(02-2100-5103~7)를 통해 직접 가입할 수 있다. /김윤상 기자

## ‘전주 올해의 책’ 독서릴레이 첫 주자 모집

### 덕진도서관, 20일까지 선착순 100명

책 중심 도시 전주에서 '2021 전주 올해의 책'을 읽는 독서릴레이가 펼쳐진다.

덕진도서관은 오는 20일까지 '2021 전주 올해의 책' 독서릴레이에 참여할 첫 주자 10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독서릴레이는 ▲바람이 눈을 빛내고 있었어(문신 글·임효영 그림, 문학동네) ▲유원(백운유 저, 창비) ▲그날, 사람(홍은전 저, 봄날의 책) 등 총 3권의 전주 올해의 책을 5인 이상이 릴레이로 책을 읽어나가는 활동이다. 성인 부문 50명, 청소년 부문 25명, 어린이 부문 25명이 첫 주자가 된다.

첫 주자에게는 신청 부분별로 전주 올해의 책이 전달된다. 첫 주자는 책을 읽은 뒤 전주독서대전 홈페이지

(jbook.kr) 내 '독서릴레이 코너'에 한 줄 평과 다음 주자 알림을 남기면 되며, 이후 다음 주자도 같은 방식으로 14일 이내에 도서를 전달하면 된다. 마지막 주자는 8월 말까지 가까운 전주시 도서관으로 도서를 반납하면 된다.

올해에는 특히 독서릴레이와 함께 필사를 신청할 경우 도서와 함께 필사 노트도 제공된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전주독서대전 홈페이지 또는 9개 전주시 도서관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2021 전주 올해의 책'은 오는 10월 1일부터 3일까지 전주한벽문화관 일원에서 열리는 '2021 전주독서대전'과 연계해 100일 필사, 독서토론, 독후감 공모전, 가족 독서 골든벨, 저자 초청 강연회 등의 프로그램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김윤상 기자

## 전북병무청, 취업맞춤특기병 설명회 가져

###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 방문해 제도 소개 등 진행

전북지방병무청(청장 이영희)은 7일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를 방문해 학위 및 기능사양성과정 학생을 대상으로 '취업맞춤특기병' 제도 설명회를 실시했다.

취업맞춤특기병이란 입영 전 공공 또는 민간위탁 기술훈련기관에서 기술 훈련을 받고 이와 연계된 분야의 기술병으로 군 복무함으로써 전역 후 취업을 원활하게 하는 현역병 모집분야를 말한다.

지원자격은 당초 고졸이하 학력자나 폴리텍 대학 전문학사 1학위 이상 수료자에서 직업계고 관련분야 전공자

로 확대됐다.

이날 설명회는 기술훈련과 군복무, 취업을 연계한 '취업맞춤특기병' 제도 소개 및 전공별 지원 가능한 모집특기와 입영가능 시기를 안내해 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호응을 얻었으며, 지원을 원하는 학생들은 현장 접수를 진행했다.

이영희 전북병무청장은 "취업맞춤특기병 제도를 많은 병역의무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도내 폴리텍대학, 직업계고 및 기술훈련기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전북지방병무청은 7일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를 방문해 학위 및 기능사양성과정 학생을 대상으로 '취업맞춤특기병' 제도 설명회를 실시했다.

## 중독 문제 해결 위한 찾아가는 상담소

### 전주시 보건소·전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평화동서 전주중독상담분소 '나눔과 이음' 운영

전주시가 알코올 중독 등 중독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센터장 고성희)는 평화동 소재 학산·전주·평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전주중독상담분소인 '나눔과 이음'을 운영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나눔과 이음'은 평화동 취약계층 주민들의 중독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재활 서비스를 연계·지원해 주기 위해 찾아가는 상담소를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월·목요일은 평화종합사회복지관, 수요일은 학산종합사회복지관, 둘째·넷째 주 금요일은 전주종합사회복지관에서 상담이 진행된다.

상담과 함께 중독자 집단 프로그램과 학교 및 복지기관 종사자 대상 중독 예방교육은 물론이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중독예방 캠페인과 영양 지원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전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지난달 16일 주택관리공단 전주평화관리소와 평화종합사회복지관, 전주종합사회복지관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협약을 체결했다.

또 17일과 18일에는 심리방역 활동을 가졌다.

고성희 센터장은 "전주중독상담분소 운영을 통해 중독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적극적인 개입을 진행할 것"이라며 "취약지역에서 중독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사자와 그 가족들의 회복과 재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진선 전주시보건소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시민들의 심리적 우울감이 더욱 심해지고 알코올 등 중독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상담분소를 통해 중독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악화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다자녀 가정 지원자가점 부여

### 전주시, 하반기부터 공무원·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 우대 기준 적용

전주시가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돕고 인구감소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공무원이나 기간제 근로자를 뽑을 때 다자녀 가정에 가산점을 주기 시작했다.

시는 올 하반기부터 시와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출연기관에서 공무원 직원과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때 이런 우대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우대 대상은 3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고, 그 중 1명 이상이 만 19세 미만인 다자녀 가정의 지원자다.

지원자의 가정에 미성년 자녀가 1명일 경우 만점의 2%, 2명인 경우에는 만점의 3%, 3명 이상에는 만점의 5%까지 가점이 차등 부여된다.

시는 이를 위해 기관별 채용 관련 내부 규정과 지침 등을 변경하는 작업에 착수해 하반기부터 가점제를 시행

할 예정이다.

시는 다자녀 가정 우대 정책을 통해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돕는 것은 물론이고 인구감소 문제에도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다자녀 가정에 우대증을 발급해 ▲전주동물원·자연생태박물관·경기전 입장료 면제 ▲공영·부설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 ▲전주시 체육시설 이용료 50% 감면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전주시 기획조정국 관계자는 "다자녀 가정 지원자에 대한 가점 부여가 다자녀 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 분위기가 확산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다자녀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우대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매일 PDF 지면보기 서비스  
www.jjmaeil.com에서



###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